

연체율 급등 지방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총력

업계, 3분기 연체율 전년비 2배 ↑ 전북은행 1.64%, 광주은행 0.69% 가계대출 연체·중소 대출 등 영향 고정이하여신도 늘어 리스크 위험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지난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늘리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연체율은 평균 0.67%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2%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전북은행(1.34%) ▲광주은행(0.69%) ▲대구은행(0.54%) ▲부산은행(0.44%) ▲경남은행(0.32%) 순으로 연체율이 높았다.

지방은행 중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한 전북은행의 3분기 연체율은 1.34%로 2분기(1.00%) 대비 0.27%p 올라갔고,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00%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



대구은행은 지난 3분기에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했다. DGB대구은행 제1 본점 전경. /DGB대구은행

(2.1%)이 전체 연체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

같은 기간 광주은행의 연체율은 지난 2분기(0.69%) 대비 0.02%p 하락한

0.67%,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4%였다. 대구은행의 3분기 연체율은 0.54%로 지난 2분기(0.52%) 대비 0.02%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56%다.

부산은행의 3분기 연체율은 0.44%로 지난 2분기(0.38%) 대비 0.06%p 올라갔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27%를 기록했다. 경남은행은 3분기 연체율 0.32%를 기록해 지난 2분기(0.32%) 수준을 유지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7%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에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가 늘었고, 기업대출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부동산·건설업체의 부실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은 높은 연체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적립하고 있다.

지난 3분기 지방은행의 누적 총당금 전입액은 7582억원으로, 지난해 3

분기(4242억) 대비 78.7%(3340억원) 늘었다.

은행별로는 가장 많은 총당금을 적립한 대구은행이 2571억원을 적립해 지난해 동기보다 98.5%(1276억) 늘었고, 광주은행이 1297억원으로 144.0%(766억원) 증가했다. 전북은행은 1140억원을 적립해 78.4%(639억원) 늘었다. 부산은행은 1543억원을 적립해 74.3%(890억원), 경남은행은 1032억원을 적립해 16.5%(146억원) 증가했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에 연체가 잦아지면서 부실 리스크도 커졌고, 금융감독원의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도 예정돼 있어 지방은행들이 총당금을 크게 늘렸다.

지방금융지주 관계자는 "최근 건전성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드 News

NH농협카드 친환경 車 특화 카드 충전비 최대 80% 혜택

NH농협카드가 친환경 이동수단 특화 상품을 공개했다.

◆전기·수소차 충전 시 40% 적립 NH농협카드는 탄소·녹색성장 실현에 동참하기 위해 '어디로든 그린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출시 기념행사에는 한화진 환경부장관,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윤상운 NH농협카드 사장 및 그린카드 제도 참여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품은 재활용 PVC소재(재생플라스틱 50% 사용)를 적용했다. 전기·수소차 충전 시 최대 40% 에코머니 적립을 제공한다. ▲버스·지하철 ▲고속버스 ▲공유모빌리티 ▲커피 이용 시 10% 적립을 지원한다. 월 최대 4만 에코머니를 쌓을 수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출시기념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전기·수소차 충전 시 상품서비스와 별개로 40% 추가 청구할인한다. 충전비를 최대 80%까지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롯데카드 쇼핑·해외여행 맞춤 할인·무이자 혜택

롯데카드가 가을맞이 쇼핑 및 해외여행 맞춤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온오프라인 쇼핑, 항공권 할인

롯데카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과 협업을 통해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온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할인 및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1일 우주페스티벌이 11번가에서 SK페이 등록 카드로 7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 즉시 할인한다.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오늘의 집 기획전을 통해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어 이달 19일까지 G마켓과 옥션에서 빅스마일데이 행사상품을 스마일페이 등록 롯데카드로 결제 시 7%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이달 말까지 티몬에서 특가기획전 행사상품을 구매하면 5~15%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위메프에서는 디지털 행사상품 및 유아용품 결제하면 최대 15%를 아낄 수 있다.

KB국민카드 해외 현지법인 통해 물품기부 사회공헌 활동

KB국민카드가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태양광 랜턴, 독서대 등 기부

KB국민카드는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현지 취약 가정 및 아동·청소년에게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캄보디아는 현지법인 'KB 대한 특수은행'은 캄퐁통(Kampong Thom) 및 프놈펜(Phnom Penh)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태양광 랜턴(800개), 금융동화 팝업북(400권), 원목 독서대(700개)를 전달했다. /김정신 기자

금융권 최초 생성형 AI 활용 상담서비스

우리銀, 비대면서 영업점 수준 상담경험 제공

생성형 AI 기반 AI 뱅커 구축 착수 예·적금 상품 상담 등에 우선 적용

우리은행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뱅커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생성형 AI 기반 AI 뱅커 구축 사업' 공고를 통해 지난 10월 26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이달 중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등의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로 이를 활용한 고객 대상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은 국내 금융권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다. 생성형 AI가 활용되면 고객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상담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업무처리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질의 금융 데이터를



우리은행 본사 전경. /우리은행

학습한 '금융언어모델'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은행 업무 지식을 주입한 '업무처리 가능한 언어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안정적인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업무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서비스 완성도를 계속 높여갈 계획이다.

우선 적용되는 업무는 '맞춤형 예·적금 상품 상담'과 '목돈마련 도우미'이다. '예·적금 상품 상담'은 고객이 원하는 가입 금액과 기간, 우대금리 등을 고려해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다.

'목돈마련 도우미'는 고객이 목표하는 금액을 마련하기 위한 최적의 상품을 제안해 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연내 일부 직원과 고객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내년 1분기 중 일반 고객이 우리WON뱅킹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출시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질문의 문맥을 파악해 적절한 답변을 생성하는 대화형 서비스로 비대면 채널에서도 영업점 수준의 상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생성형 AI 등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은행의 다양한 업무에 적용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지속 차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농협금융은 7일 중구 소재 본사에서 Amundi와 주주간 협력과제 추진경과를 점검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 후 올리비에 마리에 Amundi 파트너십 총괄 임원(왼쪽)과 길정섭 NH농협금융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아문디 해외투자·상품개발 등 주주간 협력 방안 논의

NH농협금융은 지난 7일 중구 소재 본사에서 아문디(Amundi)의 올리비에 마리에 파트너십 총괄 임원 등 관계자들과 주주간 협력과제 추진경과를 점검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 NH-Amundi 자산운용을 농협금융의 초일류 선도 자산운용사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사는 해외투자, 상품개발, 마케팅 분야에 대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협금융과 Amundi는 지난 2월 NH-Amundi 자산운용 창사 20주년을 맞이해 체결한 양사간의 협력의정서에서 '코리아 트레이닝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다. 범농협 투자역량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목적으로 Amundi 거점 오피스에서 ▲채권 투자(6월) ▲자산배분 및 멀티에셋 투자전략(10월) 과정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NH-Amundi 자산운용은 '신뢰로 함께하는 글로벌 투자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초일류 자산운용사로 나아가기 위해 '2024년 전략 목표'를 '디지털 기반의 투자 솔루션과 우수한 운용성과로 고객 가치 극대화를 두고 있다. /이승용 기자

국토부, 오늘부터 30일간 건설현장 2060곳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등 총 1164명 인력 투입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등도 점검

9일부터 12월20일까지 30일간(공휴일 제외)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2개 기관이 참여해 동절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전국 206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외부전문가 43명을 포함한 총

116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겨울철 기온저하에 따른 콘크리트 타설·양생시 시공관리대책 수립 여부 등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 ▲지반 동결작용으로 변형이 우려되는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계측기 설치·관리상태 ▲겨울철 폭설 및 강풍에 따른 안전시설물 관리상태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 작성여부 등 동절기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관리인에 대한

업무수행 실태,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작성·이행여부, 정기안전점검 실시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 부실·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시 벌칙·과태료·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조치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난 분기 사망사고발생 건설사 현장에 대한 정밀점검 등 특별관리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